

**인권주일
설교**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가복음 9:1~3>



김성효 목사 (구마모토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 중 12명을 <사도>로 선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과 권능>을 부여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미 <힘과 권능>이 있었기에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과 권능>이 없었던 사도들에게 그에 합당한 <힘과 권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힘과 권능」을 통하여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귀신을 물리치는 일>과 <병을 치유하는 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이 3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앞서 이미 실천하고 계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실천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3가지 사역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억압받는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는 파송 받은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는 단순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돈은 여행자라면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돈은 물론이요 휴대전화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것조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스스로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를 통하여 아뢰고, 앞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며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사도로서의 참된 신앙이며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의 여정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사도들은 부름 받은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이어서 누가복음 9: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나라를 넘어 이방 세계로 즉, 온 세상으로 전도의 지경이 넓혀져 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선교는 그대로 교회의 선교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을 부여 받아 선교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2016년 4월14일과 16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후네초(御船町)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와 일본기독교단 큐슈교구는 선교협약의 실질적 행동으로써 피해지의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피난소에서 시작된 「드림카페」는 현재 가설주택으로 장소를 옮겨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가설주택 10개소를 순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하시고 삶의 희망과 앞 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협의회를 비롯하여 가설주택에 사는 사람들도부터 보다 많은 활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세상의 소수자로서 힘도 영향력도 없는 작은 존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을 예수님의 사도와 같이 부여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피해지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지원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쿠마모토교회도 재해를 입은 교회당과 사택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재건과 피해지 지원활동이라는 선교적 과제를 두고 다시 한번 12사도를 떠올려 봅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쓰임 받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불안하고 마음조리고 있었는지, 아니,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라 바꾸어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용기와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피해지 쿠마모토라고 하는 파송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함께 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YMCA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ゴ・カヤ gum・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2017년 전국 장로 연수회 개최

주제: KCCJ의 필요한 기구 개혁이란 무엇인가?



2017년 전국 장로 연수회가 「KCCJ의 필요한 기구 개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7월16일(일) ~ 17일(월)까지 호텔 클라이트 신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참석한 장로와 전국 여성 연합

회 임원까지 합쳐서 55명이 참가하였고, 현재 KCCJ가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안되어온 기구 개혁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날은 저녁 식사 후 개회 예배를 드렸다. 정연원목사로 부터 「장로의 자격과 역할」 (딤후3:1~7) 이라는 설교가 있었다. 예배후 이번 주제에 대한 기초 강연과 발제가 있었다. 우선 기구 개혁 위원회 위원장인 이근수 목사로부터 KCCJ가 당면한 문제점과 위원회에서 토의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나카에요이치(中江洋一) 목사로부터 총대권에 대한 발언과 김성원장로로부터 총회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김수남 장로로부터 교직자 퇴직 연금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과 개혁안에 관해서 발제되었다. 계속해서 다섯 분단으로 나누어져서 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약 한시간 반 정도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둘째날 아침기도회 시간에 김도영장로의 「축복과 계약」 (창 9:12~17)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이 있었다. 항상 교회를 우선시 하였던 부친인 고 김덕성 목사의 목회 자세와 가족과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을 통하여 신앙이 연단되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조식후 각 분단의 토의 내용이 보고된 후 요시이히데오 (吉井秀夫) 장로의 사회로 종합토론회를 가졌다. 총대권, 재정문제, 연금문제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고 어떠한 근본적으로 KCCJ 조직에 관계된 긴급한 문제인

것임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졌으나 개혁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문제의 성격상 좀더 신중하게 계속해서 토의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토론이 끝난 후 임영재 장로로부터 「동경교회문제」의 관한 경과와 조정 위원회의 진보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 마지막 폐회 예배는 총회장 김성제목사로부터 「성경에서 장로란?」 (민11:16~17, 딤후1:5~9)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이번 장로 연수회는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KCCJ에 관한 정보 공유와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에 걸쳐서 열심히 토론을 하였으나 문제의 해결법과 개혁안에 있으려는 참가자가 소속한 교회와 지방회의 배경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견해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토의를 통해서 문제 의식을 함께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일치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KCCJ의 장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한 희망이 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보고 : 윤성철 장로)

청년회

청년회 하계수양회 개최

풍요로움/약함, 자유와 화해 테마로 주제강연



2017년8월9일~12일에 걸쳐 전국청년회 하계수양회가 나가노현 기자키호수에서 개최되었다. 32명의 청년들이 각 지방에서 모여 은혜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서남지방회 청년이 참가해 준 것이 큰 기쁨이었다.

작년도 하계수양회, 그리고 지난 2월에 가진 <청년을 위한 수양회>에서의 미국 Gospel팀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정을 거쳐 찬송과 기도의 중요성을 되찾기 시작한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접하게 되었다. 올해는 특별히 청년이 지은 곡에다가 사를 만들어 하나의 original 찬송가를 만드는 workshop을 가졌다. 몇 개의 그룹에 갈라져 <풍요로움>, <내가 변화된 후>, <친구>, <신앙의 눈> 등의 제목아래 의견을 나누면서 만든 시에는 표면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상생활에 묻어있는 마이너리티로서의 어떤 고뇌나 갈등 등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이 빛을 쏟아주신다는 말씀이 나타나 있었다.

<기도만 하고 교회 밖에 안나가도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제대로 기도드리고 있는가?> 이 두가지 물음을 서로 나누었던 작년 수양회 이후 청년들은 나름대로 이분론적인 지평을 넘어 선 곳에 서기 원하고 있음을 느꼈다. 개인과 하나님, 신앙과 사회의 관계를 <풍요로움/colorful>이란 keyword를 통해 장정수대표가 전한 주제발제, 현대적인 자기정체성 문제를 <풍요로움/약함>, <자유>와 <화해>란 keyword를 통해 생각하게 해 주신 손유구목사님(일본기독교단)의 주제강연은 청년들에게 생각하는 많은 재료를 제공해 주었다. 또 각 지방회 목사님(정유성, 송남현, 최종복, 윤선박)들도 참석해 주셔서 기도와 설교 또 찬양지도를 통해 많이 도와 주셨다. 청년들의 만남과 영적인 기쁨을 예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청년들의 자주성 또한 주님이 예비해 주심을 믿으면서 총회는 앞으로도 부드러운 돌봄과 격려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도위원장 김신야)

2017년도 선교사 연수회 개최

7명이 참가하여 총회 선교 이념 등 배워

한국의 선교협약교단에서 파송 받아 본 총회에 가입해서 임지에 부임하게 되는 선교사 교육을 위한 선교사 연수회가 지난 7월 11일~20일, 총회 신학교에서 7명이 모여 합숙으로 가졌다.

교육과목으로는 재일대한국교회 신학과 선교 이념, 역사, 헌법과 규칙, 재일동포 역사, 일본기독교회의 신학과 교회사, 에큐메니칼 신학, 예식, 예전, 그리고 총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연금, 총회 행정등의 안내를 받고 일본기독교단, 재일본한국YMCA,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NCCJ), RAIK, 마이너리티선교센타등을 방문하였다.

특별강사(卓志雄, 성공회사제)를 초청하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종교들의 동향에 대한 강의, 그리고 중국선교에 관한 강연을 잠시 동경에 체류하고 있는 김광성교수(金光晟, 주안대학원대학교)를 통하여 듣기도 했다.

연수회 장소가 총회신학교이기 때문에 7월16일 주일예배는 西新井교회에 참석하고, 관동지방회 여러 교회들도 방문하여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하였고 각 교회의 역사와 상황 등을 듣고 보람찬 교류를 하기도 하였다.



한일교회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한일16명이 역사공동학습과 예배교류 체험

지난 7월31일~8월3일, 3박4일간 16명(중부지방회6명, 교단 중부교구7명, 일본그리스도교회 중부지구3명)이 참가하여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하여>의 테마를 가지고 한일교회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가졌다.

금번으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한일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일해야 할 한일, 재일 청소년들의 역사 공동학습과 예배및 교류의 체험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재일대한기독교회, 일본기독교단, 일본그리스도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신교회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받아준 교회는 한국기독

교장로회 한신교회(강용규목사)이며, 숙박과 교통편 등의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첫째날에는 초기 한국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고 한신교회에서 개회예배를 가졌으며, 둘째 날은 경기도 안산으로 이동하여 3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고로 299명의 희생자, 행방불명5명, 수색작업원 사망8명의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였다. 학생250명, 교사11명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족 부모들로 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세째 날에는 3그룹으로 나누어 서울 시내를 돌아보면서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한신교회 수요예배(설교: 草地大作牧師, 教團名古屋中央教会)에 참석하여 일본참가자 일동의 특별찬송을 하는 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박4일 동안 한일의 평화, 화해, 공생에 대하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년에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일본을 방문 할 예정이다.

(보고: 新井由貴 목사)



관서지방회

합동 하기학교를 개최 『우리들의 예물』 주제로 23명 아동이 참가



지난 7월16일(주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우리들의 예물』이라는 주제로 관서지방회 교육부 주최 합동하기학교가 교도남부교회에서 열렸다. 참가자는 어린이 23명, 어른 19명, 9교회가 참가했다.

개회예배는 교육부부장인 박영자목사님이 인도하고, 바로 오리엔테이션과 분반공부 ①를 가졌다.

저녁식사는 남성팀들이 밥을 홀리면서 구워준 바베크로 맛있게 먹었다. 그후에 어린이들과 함께 불꽃놀이로 즐거운시간을 보냈다.

이틀째는 아침의 기도시간을 박시영목사가 담당, 라디오체조를 김명미교사가 지도한 후에, 분반공부 ②, ③를 가졌고, 어제 배운 것에 이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배웠다.

점심식사는 합동하기학교의 명물인, 신용섭목사가 고안한 나가시 소면을 어린이들과 같이 먹었다. 폐회예배는 허백기목사가 담당, 마지막은 시미즈 노조미 사모의 인도로 각 분반공부의 담당교사에게 배운 음악과 댄스 등을 어린이들이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 모습은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다.

올해도 합동하기학교가 무사히 끝날 수 있게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교육부부원을 비롯하여 각교회에서 아낌 없이 봉사해 준 분들, 특히 장소를 제공해 준 교도남부교회의 여러분에게 짐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관서지방회 교육부)

서부여성회

일일연수회를 개최 무코가와교회서 '찬미에 대해서' 배워

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의 [일일연수회]가 7월25일(화) 오전 11시부터 무코가와교회에서 개최되어 43명이 참가했다.

개회예배에는 이효자 청년부장의 사회로 양영우목사(무고천교회)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호수아 3: 1 - 6) 제목으로 멧세지가 있었다.

점심은 무코가와교회 여성회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맛있는 요리를 함께했다.

오후부터는 윤효인 음악부장의 사회로, 강사는 무코가와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지도했으며, 27년전에 [부활예수그리스도교회] (단립)을 개척한 강성안목사를 맞이하여 [찬양에 대하여]란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풍성한 일일연수회였다. (보고자 : 윤풍자)



서부여성회

삼역확대연석회의 열어 제30회 수양회나 신도의 모임 등을 결정

서부지방회 여성연합회 제16회 임원 확대연석회의가 5월30일(화) 오후1시부터 니시노미야교회에서 출석20명(6교회)으로 개최되었다. 목도후에 찬송가 508장을 찬양하고 오오야마부서기가 기도를 드렸다. 계속해서 최미혜교회장의 사회로 임원 확대연석회의가 시작되고 2017년의 활동계획의 토의가 있었다.

금년의 주요활동은 ①제61회 전국여성연합회정기대회 연수회(6월22-24일 참가) ②제30회 수양회 ③제30회 신도의 모임 ④제21회 부활절 합동예배 ⑤1일연수회(찬양과 기도) ⑥권사회에 관하여 ⑦세계기도일참가등이다. 금년 서부지방회 여성연합회 수양회가 30회가 되므로 한국울산노회를 방문하는 제안도 있었다. 그 후 참가한 교회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참가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도하였다. 니시노미야교회 여성회의 모든 분들이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음식으로 교제의 시간을 갖고 김영주목사의 기도로 폐회하였다. (보고자:윤풍자)

서남지방회

고문국장로 장립식 거행 02년부터 벧부교회에서 집사로서 봉사



지난 2017년 7월16일에 서남지방회 벧부교회에서 고문국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신치선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드리고 서남지방회장 이혜란목사의 사식에 의해 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김성효목사(熊本교회)가 장립을 받는 장로에게, 주문홍목사(小倉교회)가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였으며 이어서, 요시타케니로목사(吉武二郎, 日本基督教団別府野口教会)와 김인과목사(福岡교회)가 축사로 진행되었다.

장립받은 고문국장로는, 1966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92년에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2001년 까지 후쿠오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며 또한 집사로서 섬겼고, 2002년부터 벧부교회로 이적하여 청년부장 및 성가대 지휘자로, 그리고 2011년에 안수집사로 임직하면서 벧부교회 초창기부터 지켜 왔다.

세계개혁교회공동체 (WCRC) 라이프치히 총회에 참석하고 (1)

총회장 김성제 목사



2010년 6월,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은, 개혁 에큐메니칼 협의회(REC=Reformed Ecumenical Council)와 통합하여 세계개혁교회공동체(WCRC=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가 된 이후 7년째를 맞이하는 금년6월29일~7월7일에 독일 라이프치히 국제회의장에서 세계 약 250개 교단 교파로부터 약1,000명의 총대 및 방문자가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WCRC본부는 현재 독일의 하노바에 있지만 이번 총회가 독일에서 개최된 배경에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의식하였고, <의인에 관한 공동선언> 조인식이 7월5일, 뷔텐베르크에서 가지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지리적으로 편리한 곳이었다고 본다.

2004년 WARC는 <아쿠라 문서> (지금은 아쿠라 신앙고백 The Accra Confession 이라고 함)를 발표했는데, 그 문서는 21세기 세계가 그로발 자본주의 폭도에 의해 <제국> (주권 국가의 국경을 걸터 앉아 가난한 주변국에서 부자 중심으로 부·자원·저임금 노동력을 흡수하는 정치 경제 구조) 적 지배의 양상이 늘어나고 세계의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환경 생태계 파괴가 현저하게 진행되고있는 사실에 대한 위기의식을 표명하고(아쿠라 신앙고백 7-14), 그 현실을 감안하여 "Life in Fullness" (풍성히 얻는 생명, 요10:10)라는 주제 아래 명확히 <불의에 희생 당한 사람들 편에 서있는 정의 Justice standing with victims of injustice)를 추구하는 선교의 길을 제시했다.

이번 WCRC총회도 그로발 자본주의 폭도, 테러 만연, 난민 급증, 그리고 난민 배척·인종 차별·배타적 민족주의기 한층 고조되어 가는 중에 명확하게 아쿠라 신앙고백 노선에 입각하면서 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이었다.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1970년대 구약성서신학자(G.フォン·라트 등)의 성과와 E. Bloch의 <희망의 원리>의 철학에서의 계발에 입각하면서 <희망의 신학,1964년>

저술 한 세계에 큰 영향을 준 조직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91세)의 신학강연을 듣게 된 것이었다. 그의 강연 테마는 <죽음의 신들에게 직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who bring life in face of gods of death> 강연 중에 몰트만은 <죽음의 신들>이란 것은 욕심을 가진 글로벌 자본주의, 인종 차별, 민족주의, 그리고 테러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죽음의 신들이 만연하는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까닭에, 현실 세계에서 정의와 자유와 인간성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투쟁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 몰트만의 감명 깊은 지적은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회가 강조해온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 義認의 은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직면하면서 받아 들여야 한다는 말이었다.

총회 총대들의 토의 주제는 교회의 선교와 정의, 그리고 특히 인상 깊은 주제로서 남녀간 정의(gender justice), 나아가서 WCRC가맹 교회의 다양성과 선교 일치의 길에 대한 것이었다. 총회 석상에서 남녀간 정의 문제를 아무리 주장해도 WCRC 가맹해 있는 세계의 교회에 아직도 여성목사, 여성장로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현실도 있다. 특히 동성애 문제(공정적 수용/안수/동성애자 결혼 승인 등)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WCRC로서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안 된다 라는 곳 까지 왔다고 인식하였다.

회의는 전원이 한 곳에 모이는 전체회의와 17개의 상호이해 분과별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우 독특한 것은 모든 회의에서 총대가 오렌지색 카드(공정적)와 푸른색 카드(부정·소극적)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합의에 기초한 결정 만들기' (Consensus-based decision making)라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회의 규칙 ('찬성' '반대'의 과반수·2/3 표결)과는 달리, 기다리고 인내하며 합의점 도달을 목표로 푸른색 카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래도 강한 반대의견이 계속되면 집행 위원회에 다시 돌려 보내는 회의 방법이다. 필자는 몇 년 전 호주연합교회 총회에 참석했을 때도 이 방식을 체험한 적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公告

在日大韓基督教武庫川教會は、増大する信徒の便宜に供するとともに、子供のための教育施設等、宗教活動基盤の充実を図るため、下記の通り不動産を取得することを広告いたします。

土地：兵庫県尼崎市稲葉元町三丁目77番地 地積 61.12㎡、兵庫県尼崎市稲葉元町三丁目78番地 (8番10) 地積 15.79㎡
建物：所在 兵庫県尼崎市稲葉元町三丁目77番地
構造 鉄骨造亜鉛メッキ鋼板葺二階建、床面積 1階 30.37㎡ 2階 25.92㎡

在日大韓基督教武庫川教會
代表役員 梁榮友
役員一同